**난중일기 – 증보 교감완역 (이순신 / 여해)**

**백 여년 만에 원문을 복원한 국내 최초의 난중일기 완역본.**   
이순신의 난중일기 초고는 전편이 초서로 되어 있어 후대에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충무공전서』의 『난중일기』는 누락과 오독이 많았고, 『난중일기초』에도 해독상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국내 최고의 난중일기 전문가 노승석은 새로운 일기 32일치를 발굴했고, 초고본과 이본을 비교검토하고 오류를 바로잡아 교감 완역하였다. 2013년에는 이순신이 『삼국지연의』 내용을 난중일기에 옮겨 적은 내용을 최초로 발굴하였다. 또한 홍기문의 최초 한글 번역본 『난중일기』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제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새롭게 반영하여 종합 정리한 증보 교감완역본이 나오게 되었다.   
  
**난중일기 전편을 완벽하게 해독한 국내 최초의 완역본.   
새로 발굴한 32일치 일기를 수록하고, 홍기문의 최초 한글번역본 반영   
이순신의 명량대첩 요인설명**   
  
이순신이 전쟁 중에 난중일기를 쓴 것처럼, 전쟁 중에 지휘관이 직접 전쟁에 참전하여 체험한 사실을 기록한 예는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사료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난중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난중일기』전편은 초서로 작성되어 있어 미상부분이 많았다. 조선 정조(正祖) 19년(1795)에 이 초고본을 정자로 해독하여 『이충무공전서』의 『난중일기』(전서본)가 나오게 되었지만, 그 원문에 상당한 누락과 오독이 있게 되었다. 그후 1935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이를 다시 해독하여 『난중일기초』가 나왔는데, 이는 전서본보다 진전된 작업이었으나 해독상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다.   
2004년 초서를 전공한 노승석 소장이 『난중일기』 9책 전편에 대한 탈초작업을 하였고, 2005년 초고본과 전서본, 『난중일기초』의 원문 교감(校勘)을 통해 백여 곳을 바로잡아 완역을 시도하였다. 2007년 『충무공유사』를 해독하여 난중일기 초록내용이 들어있는 일기초(日記抄)에서 새로운 일기 32일치를 찾아내었다. 이는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달리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 일기초의 내용으로 초고본의 문제점을 상당수 해결할 수 있었다. 마침내 2008년 초고본과 이본(異本)의 오류를 종합 검토하고 교감하여 교감완역본을 만들었다.   
2013년에는 이순신이 『삼국지연의』를 탐독하고 교훈이 되는 내용을 난중일기에 옮겨 적은 것을 최초로 발굴하였다. 국가는 어려운 때일수록 항상 인재가 필요하고 전쟁에는 국방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내용이다. 이순신 자신도 이 내용에 공감하여 일기속에 따라 적어 둔 것이다. 또한 벽초(碧初) 홍명희(洪明熹)의 아들 홍기문(洪起文)이 1955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난중일기』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이는 초고본을 확인하지 않고 활자본을 토대로 번역한 것이므로, 완전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초의 번역본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1968년 이은상이 최초로 난중일기를 번역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내용들을 반영하여 『증보(增補) 교감완역 난중일기』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역사적인 내용과 용어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완하였다. 후대의 이본들을 모두 망라하여 정리한 점에서 지금까지 나온 난중일기 중 가장 완벽한 번역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출판사 서평)

**세상의 매듭을 푸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 하양인)**

이 세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군데는 속해 있는 개인, 사회, 가정과 교회 분야의 꼬인 매듭을 푸는 이야기! 평화로우면서도 진솔한 대화로 ‘사통팔달을 추구하는 사십 가지 소통(4부·8장·40개 주제로 구성)’에 대한 자비한 사랑의 메시지가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으로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2013년 2월 11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자유의지에 따라 교황직을 사임하였는데, 이는 교회 역사상 598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하느님 안에서 영적인 식별로 자신과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에 기도의 봉사로써 함께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 겸손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 추기경이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니, 그가 바로 교황 프란치스코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취임 후 첫 번째 메시지와 행보는 단번에 세상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현대사회를 인간 위기의 시대라고 규정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시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함께 일구어 나가자며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에서 낮은 자세로 몸소 가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소재는 소통 · 사회 · 가정과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매듭풀기로 4부, 8장, 40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역대 교황의 말씀들이라고 하면 신자가 아닌 일반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들은 단순명료하고 사실과 본질에 대하여 정곡을 찌르는 메시지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이 후련하고, 때로는 박수를 치게 되고, 때로는 자신과 이웃의 모습이 보여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 저는 마음 속 깊이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고, 점점 변화하고자 하는 열정이 올라옴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과 함께 공유되길 희망해 봅니다. 한국사회와 교회 안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리에 놓일지라도 우리들이 희망만은 잃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이 책의 중심 소재는 소통 · 사회 · 가정과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매듭풀기로 보통 역대 교황의 말씀들이라고 하면 신자가 아닌 일반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황 프란치스코의 말씀들은 단순명료하고 사실과 본질에 대하여 정곡을 찌르는 메시지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교황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리에 놓일지라도 우리들이 희망만은 잃지 말 것을 당부하고,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도 중이라 합니다. (출판사 서평)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요나스 요나손 / 열린책들)**

**100세 노인의 삶보다 더 기구하고 기상천외한 까막눈 소녀의 삶**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빈민촌에서 시작된다. 다섯 살 때부터 분뇨통을 나르며 생계를 이어 가야 했던 소녀 놈베코. 빈민촌의 여느 주민들처럼 그녀도 제대로 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천재적인 두뇌를 타고났다. 《세상 셈법》에 밝은 놈베코는 주변의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성장해 간다. 호색한이지만 문학 애호가인 옆집 아저씨에게서 글을 배우고 매일같이 라디오를 들으며 《똑똑하게》 말하는 방법도 터득한다. 아주 우연히 다이아몬드 수백만 달러어치를 손에 넣게 된 놈베코는 용기를 내 평생 갇혀 살던 빈민촌을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복잡한 사정 끝에 핵폭탄을 개발하는 비밀 연구소 《펠린다바》에 갇힌 놈베코는 명목으로는 청소부이나, 실상은 연구소장 뒤에 그림자처럼 숨어 핵폭탄 개발에 관여하게 된다. 연구소장인 엔지니어는 오로지 아버지의 권력과 부유함 그리고 넘치는 행운으로 남아공 최고 핵 전문가가 된 인물이다. 간단한 수식조차 모를 만큼 멍청했던 그는 놈베코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조력자로서 이용한다. 허수아비 엔지니어를 뒷받침하는 놈베코의 활약 덕분에 핵폭탄 생산이 순조롭게 이어지던 어느 날, 엔지니어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핵폭탄 하나가 주문량을 초과해 만들어진 것을 발견한다. 이후 정치 망명자로 가장해 스웨덴으로 향한 놈베코가 어쩌다 이 《잉여 핵폭탄》을 떠안게 되면서 기상천외한 모험이 시작된다. 태생부터 불행했던 놈베코.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핵폭탄을 먼저 처리해야 했다.   
  
**세상의 바보들을 비트는 과감하고 통쾌한 풍자**   
놈베코가 거의 평생을 핵폭탄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요나손이 정말로 전하고 싶은 우의(寓意)가 담겨 있다. 핵폭탄은 당장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자칫하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존재이다. 놈베코 주변에는 핵폭탄 외에도 《인간 시한폭탄》이라고 부를 법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넘나드는 인간 군상이 존재한다. 수학이라곤 아는 게 없는 사회 엘리트층 핵무기 엔지니어는 물론이고, 둘 중 하나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쌍둥이 형제 홀예르 1, 홀예르 2가 그렇다. CIA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불안증에 걸린 미국인,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짝퉁 사기》를 일삼는 중국 여자들, 세상 모든 일에 분통을 터뜨리는 소녀, 자신의 태생은 백작부인이라는 환상에 젖어 살아온 감자 농사꾼, 농부가 꿈이었던 철없는 국왕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핵폭탄을 매개로 서로 엮이게 되고, 놈베코는 그 중심에서 이들을 다독이며 세계 평화를 지켜 낸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옳지 않은데도 저마다 잘났다고 떠드는 세상에서, 실제로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가장 낮은 존재인 까막눈이 여자인 것이다.   
《100세 노인》이 세상에 대해 이리저리 따지기보다 우연과 운에 몸을 맡기고 유유자적 살아가는 인물이었다면, 《까막눈이 여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꼼꼼히 계산해 행동하는 꾀바르고 이성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 앞에 연이어 나타나는 불행한 사건들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헤쳐 나가는 한편, 진짜 핵폭탄은 물론이고 《인간 시한폭탄》들까지 잘 다스려 행복을 쟁취하고야 만다. 놈베코는 진정으로 《세상 셈법》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자이다.   
  
**올여름, 문학 독자들을 행복하게 할 기대작!**   
요나손의 데뷔작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8백만 부 이상 팔리며 더 말할 것 없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신작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또한 출간 직후부터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 4백만 부 이상 판매되었던 독일에서는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초판 부수가 60만 부에 달하였으나 금세 소진되어 화제가 되었다. 이 두 작품 모두가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나손 특유의 재치와 풍자, 유머가 넘치는 글이 누구에게나 보편적 공감을 일으키며 한바탕 웃음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출판사 서평)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